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참여¹⁾

김기현 선임연구위원
장근영 선임연구위원
조양진 연구원

요약

조사목적

이 연구에서는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이 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사회 첫 출발이 지연되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성인 이행기의 실태를 분석하고 원활한 사회 첫 출발을 돕기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

조사대상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는 2021년부터 만18세에서 34세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음.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에서 34세로 정의하고 있는데 19세가 아닌 18세로 조사가 이루어진 이유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져 향후 「청년기본법」도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한 것임. 이와 관련 이 연구에서는 19-34세 모집단 및 표본 가중치를 개발하였으며 법 개정 전이므로 결과 분석은 19-34세로 이루어졌음. 이번 조사 응답자 수는 19-34세 기준으로 1,938명이었음.

조사방법

이 조사는 조사원이 청년이 거주하는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면접조사로 이루어졌으며 태블릿PC를 이용하는 TAPI방식이 활용되었음.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종이설문을 이용한 유치조사를 병행하였음.

조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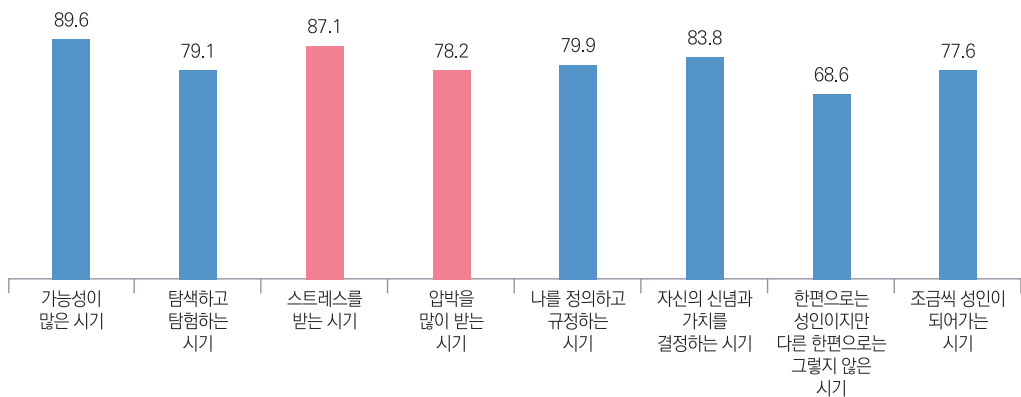
조사기간은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졌음. 조사 문항에 대해 원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쳤음.

1) 본 블루노트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3년 연구과제인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참여」를 발췌·요약한 것임.

1 성인기 이행에 대한 인식

■ 청년이 생각하는 청년의 시기

- “가능성이 많은 시기”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결정하는 시기”라는 응답 순이었음.
- “가능성이 많은 시기”라고 보는 응답(약간 동의함+매우 동의함)이 89.6%로 가장 많았음. 이것은 아넷(Arnett, 1998)이 청년기를 삶의 방식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기로 보는 긍정적인 관점에 해당하는 질문임.
- 이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라는 응답이 87.1%로 뒤를 이었음. 이것은 아넷이 청년기를 불안정(instability)한 시기로 보는 관점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안과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청년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결정하는 시기”라는 응답이 83.8%로 뒤를 이었음. 이것은 아넷이 청년기를 자기에 초점을 맞추는 시기(self-focused period)로 본 것에 해당하는 질문임. 청년기에서 자기중심성은 이기주의나 자기만 생각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파악하고 앞날을 계획하는데 집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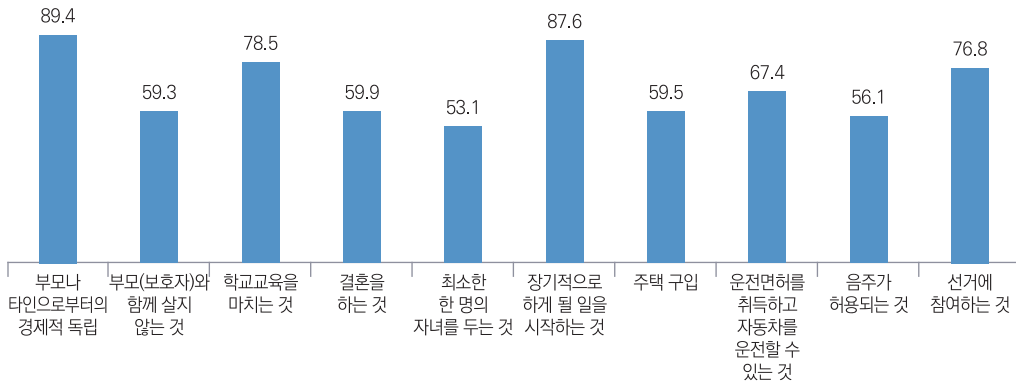
출처: 김기현, 장근영, 신인철, 임성근(2023: 35), 약간 및 매우 동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1 청년(19-34세)이 생각하는 청년의 시기(% , 2023)

■ 청년이 생각하는 중요한 성인의 기준

- 성인의 기준에 대해서 “부모나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장기적으로 하게 될 일을 시작하는 것”, “학교교육을 마치는 것”, “선거에 참여하는 것”순이었음.
- 10가지 성인의 기준에 대해서 약간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로 살펴보면, “부모나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비율이 89.4%로 가장 높았음.
- 이어서 “장기적으로 하게 될 일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87.6%로 두 번째로 높았음.
- 성인으로서 권리를 갖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에서는 아넷 등이 제안한 문항과 함께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추가하였는데 이 질문에 대한 응답비율이 76.8%로 “학교교육을 마치는 것”에 이어서 네 번째로 높았음.
 -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67.4%였고 “음주가 허용되는 것”은 56.1%로 “최소한 한 명의 자녀를 갖는 것”(53.1%)에 이어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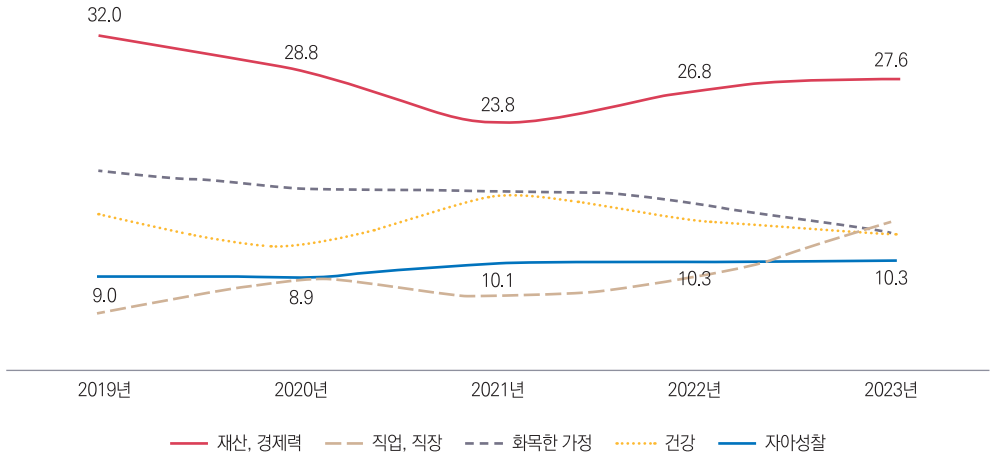
출처: 김기현, 장근영, 신인철, 임성근(2023: 45). 약간 및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2 청년(19~34세)이 생각하는 중요한 성인의 기준(% , 2023)

2 행복의 조건과 인권 존중

■ 청년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 19~34세 청년들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재산, 경제력이라는 응답이 28.2%로 가장 많았음. 이어서 화목한 가정이 16.3%였고 건강(13.0%)에 이어 직업, 직장(12.5%), 꿈, 목표의식(8.9%) 순이었음. 이 결과는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는 얼마나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가 더 행복한 조건으로 보고 있음을 말해줌.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에서 다른 불평등보다는 자산불평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청년사회 · 경제실태조사에서부터 포함된 문항으로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19~34세 청년들의 재산, 경제력이라는 응답비율은 2019년 32.0%에서 꾸준히 낮아졌으나 2022년 들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2023년에도 27.6%로 높아졌음. 재산, 경제력과 대비되는 행복조건이 자아성취의 경우 9.0%에서 10.0% 전후로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행복한 가정이나 건강은 감소세인데 반해 직업, 직장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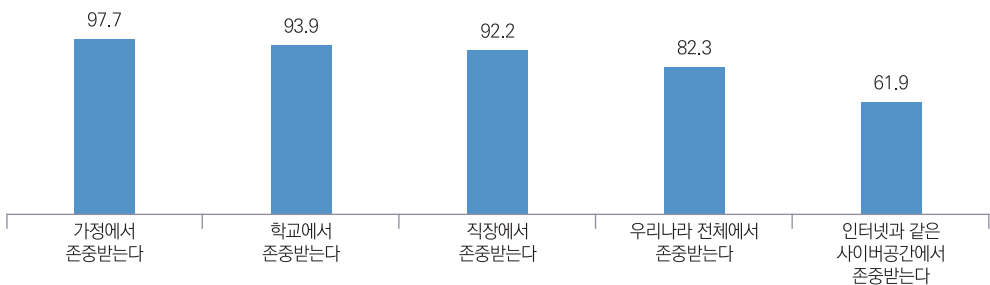


출처: 김기현, 장근영, 신인철, 임성근(2023: 57). 2023년 5가지 상위 응답을 기준으로 했으며 표본조사 대상 연령을 고려하여 19~29세 결과를 비교해 제시하였음,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3 청년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조건 연도별 추이(% , 2019~2023)

■ 청년이 생각하는 인권을 존중받는 정도

- 가정에서 존중받는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존중받는다라는 응답은 가장 적었음.
 -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추가 문항으로 청년이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와 사이버 공간에서 얼마나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는지를 질문하였음.
 -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은 다른 공간보다 가정에서 존중받는다(존중받는 편이다+매우 존중받는 편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어서 학교에서 존중받는다라는 응답비율은 93.9%로 높았고 직장이라는 응답비율이 92.2%, 우리나라 전체에서 존중받는다라는 응답비율이 82.3%로 나타났음. 사이버공간에서 존중받는다라는 응답비율은 61.9%로 가장 낮은 응답비율을 보여주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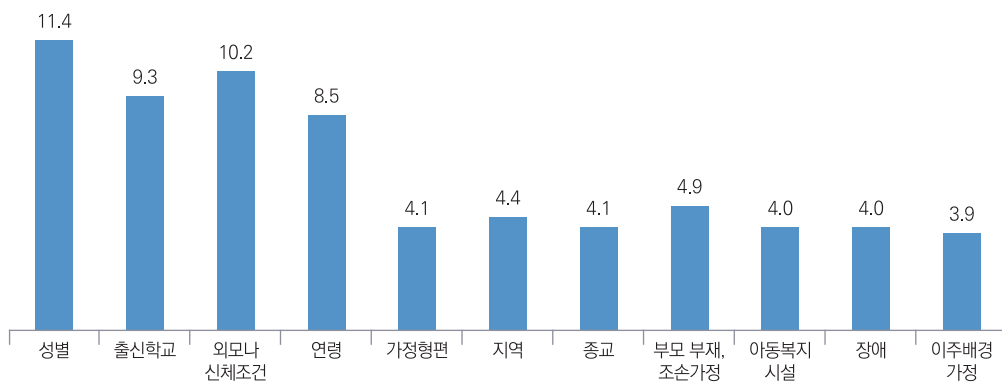


출처: 김기현, 장근영, 신인철, 임성근(2023: 59). 존중받는 편이라고 매우 존중받는 편이라고 응답한 결과임.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4 청년이 생각하는 인권을 존중받는 정도(% , 2023)

■ 청년이 차별을 받은 경험

- 성차별 경험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외모나 신체조건에 대한 차별이 많았음.
 -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인권 존중과 더불어서 차별 경험에 대해서 11가지 영역별로 질문 문항이 추가되었음.
 -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성차별이 11.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외모나 신체조건에 대한 차별(10.2%),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9.3%), 연령 차별(8.5%)로 나타났음. 가정형편이나 지역, 종교, 부모 부재, 조손가정에 대한 차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차별, 장애 및 이주배경 가정에 대한 차별은 4.0% 내외로 나타났음.



출처: 김기현, 장근영, 신인철, 임성근(2023: 68), 차별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라고 응답한 결과임,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5 청년이 차별받은 경험(% , 2023)

3 직장내 괴롭힘과 안전 사고 경험

■ 직장내 괴롭힘 경험

-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떠넘겼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0%로 가장 높았음.
 - 직장내 괴롭힘이나 산업안전 상 사고 경험을 살펴보면, “회사로부터 업무수행 중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인 및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혹은 교육을 받았다”고 긍정적인 결과를 물어 본 질문을 제외하고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떠넘겼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0%로 가장 높았음.
 - 이어서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의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였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4%였음. “나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근로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응답이 3.2%였고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의 나에게 소리치거나 화를 내거나 모욕적인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다”가 2.7%로 높았음.

표 1 현재 일자리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있다 비율만)(명, %)

구분		사례수	현재 일자리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전체		(1,220)	5.0	2.7	0.7	4.4	1.3	2.1	0.4	0.8	10.0	3.2	1.3
성별	남자	(629)	5.0	4.0	1.1	5.0	1.5	2.4	0.2	0.9	13.2	4.7	1.8
	여자	(591)	5.1	1.4	0.2	3.9	1.0	1.8	0.7	0.8	6.5	1.5	0.8
연령	만19~24세	(260)	4.7	1.5	0.5	2.0	0.0	1.4	0.3	0.8	8.9	1.6	0.0
	만25~29세	(490)	5.1	3.5	0.4	4.8	1.6	1.3	0.4	1.0	11.0	3.9	2.2
	만30~34세	(470)	5.2	2.6	1.1	5.4	1.6	3.3	0.6	0.7	9.5	3.2	1.2
도시규모	대도시	(735)	5.1	1.5	0.7	3.3	1.5	2.2	0.6	0.8	9.6	2.5	1.1
	중소도시	(281)	6.6	5.3	0.8	8.3	0.8	2.4	0.4	0.5	12.3	3.8	1.5
	농어촌	(204)	2.9	3.6	0.5	3.5	1.1	1.4	0.0	1.3	8.0	4.7	2.0
학력	고졸이하	(349)	4.1	2.4	1.2	3.9	2.2	2.2	0.3	1.9	10.6	3.3	1.7
	대학/대학원 재학	(96)	4.7	2.7	0.0	0.9	1.1	1.3	0.9	0.0	8.1	0.0	0.0
	대졸이상	(775)	5.6	2.9	0.5	5.2	0.8	2.1	0.4	0.4	9.9	3.5	1.3
경제 수준	못산다	(155)	9.8	6.7	1.8	6.7	1.9	2.5	1.2	1.5	15.6	6.1	2.6
	보통	(681)	4.6	2.3	0.3	4.2	1.1	1.9	0.3	0.6	9.4	2.8	1.3
	잘산다	(384)	3.6	1.7	0.9	3.8	1.3	2.3	0.4	0.9	8.5	2.4	0.8
주거 형태	동거	(688)	4.1	2.7	0.3	4.0	0.7	1.6	0.6	0.6	9.8	2.7	0.9
	비동거/독립	(532)	6.2	2.8	1.1	5.0	1.9	2.7	0.3	1.1	10.1	3.8	1.9
일자리 형태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3.5	3.0	0.4	1.7	1.1	2.2	1.2	1.4	6.6	2.8	0.4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5.4	2.7	0.7	5.1	1.3	2.1	0.3	0.7	10.8	3.2	1.6
혼인상태	배우자없음	(987)	4.7	2.6	0.4	4.0	1.4	1.9	0.5	0.7	9.8	3.1	1.1
	배우자있음	(233)	6.5	3.3	1.8	6.6	0.6	3.0	0.2	1.3	10.6	3.5	2.5

①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떠넘겼다. ②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나에게 소리치거나 화를 내거나 모욕적인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③ 고용주, 직장상사가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암묵적·직접적으로 강요하였다. ④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였다. ⑤ 교육·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 대우 등에서 나를 다른 동료들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였다. ⑥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암묵적·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내 요구를 무시하였다(병가, 휴가, 휴직, 교육훈련 등) ⑦ 나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 또는 행동을 했다(이메일, 메시지, 전화 포함/성적 농담, 성추행 등 포함) ⑧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업무 외의 대화나 식사, 모임 등에서 나를 조직적으로 제외하였다. ⑨ 회사로부터 업무수행 중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인 및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혹은 교육을 받았다. ⑩ 나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근로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다. ⑪ 업무수행 중 업무로 인하여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로 인해 다친 적이 있다.

출처: 김기현, 장근영, 신인철, 임성근(2023: 95).

■ 안전사고 경험

- 12.7%가 직장에서 사고로 다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
 - 다음으로 직장에서 사고로 다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2.7%가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음.
 -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비율이 높았음. 연령별로는 30대 이상이 많았고 대도시, 고졸 이하, 저소득 계층이거나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임금근로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비율이 높았음. 이 결과는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2 현재 일자리에서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경험(있다 비율만)(명, %)

구분		사례수	현재 일자리에서의 경험		
			모르겠다	있다	없다
전체		(16)	7,8	12,7	79,5
성별	남자	(11)	10,9	10,8	78,3
	여자	(5)	0,0	17,3	82,7
연령	만25~29세	(10)	12,0	0,0	88,0
	만30~34세	(6)	0,0	36,2	63,8
도시규모	대도시	(8)	0,0	26,2	73,8
	중소도시	(4)	0,0	0,0	100,0
	농어촌	(4)	31,1	0,0	68,9
학력	고졸이하	(6)	0,0	32,9	67,1
	대졸이상	(10)	12,7	0,0	87,3
경제 수준	못산다	(4)	0,0	19,0	81,0
	보통	(9)	0,0	14,0	86,0
	잘산다	(3)	41,4	0,0	58,6
주거 형태	동거	(6)	0,0	0,0	100,0
	비동거/독립	(10)	12,5	20,3	67,2
일자리 형태	임금근로자-비정규직	(1)	0,0	0,0	100,0
	임금근로자-정규직	(15)	8,3	13,4	78,3
혼인상태	배우자없음	(10)	11,8	0,0	88,2
	배우자있음	(6)	0,0	37,3	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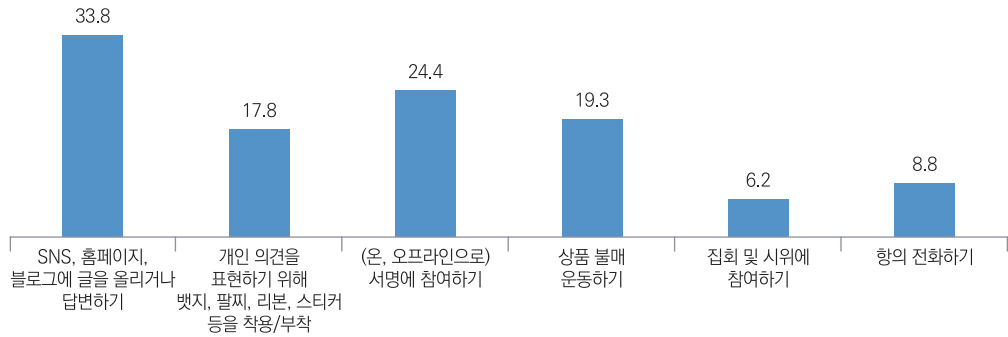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출처: 김기현, 장근영, 신인철, 임성근(2023: 96).

4 청년 참여

■ 청년의 사회, 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방법

-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는 경우가 33,8%로 가장 높아
 - 청년의 사회, 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방법을 살펴보면,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지적답게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는 경우가 33,8%로 가장 높았음.
 - 이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가 24,4%였으며 상품 불매 운동하기는 19,3%였음. 전통적인 의사 표시 방식 중 하나인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는 6,2%로 낮았음.



출처: 김기현, 장근영, 신인철, 임성근(2023: 109).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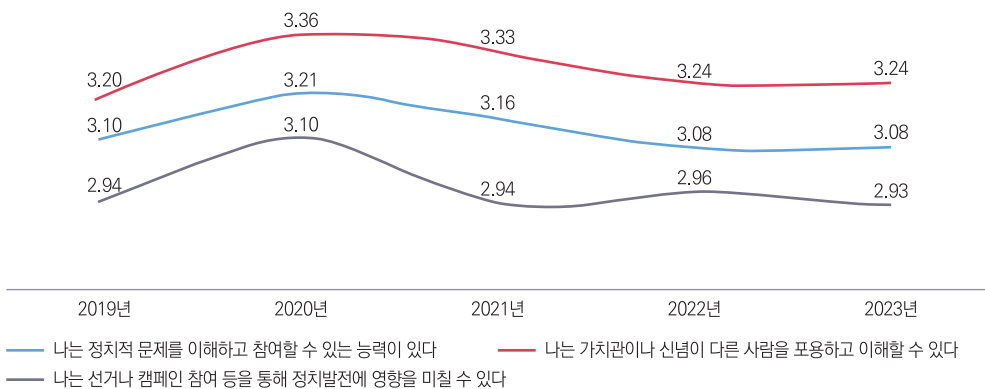
그림 6 청년의 사회, 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참여방법(% , 2023)

■ 청년의 정치효능감

- 청년의 정치효능감은 2020년 이후 낮아지는 추세

– 2019년부터 청년에게 정치효능감에 대해 묻었는데 이 결과를 살펴보면,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세 가지 질문으로 물어본 결과 정치효능감 점수가 높았었으나 이후 낮아졌음.

– 정치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질문은 2020년 3.21점에서 2023년 3.08점으로 낮아졌음.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질문 역시 2020년 3.36점에서 2023년 3.24점으로 낮아졌음.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질문은 2020년 3.10점에서 2023년 2.93점으로 낮아졌음.



출처: 김기현, 장근영, 신인철, 임성근(2023: 117). 5점 척도의 평균점수임. 표본조사 대상 연령을 고려하여 19~29세 결과를 비교해 제시하였음.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7 청년의 정치효능감 추이(점, 2019~2023)

■ 지난 대통령선거 참여 여부

- 대통령선거 참여 여부를 살펴본 결과, 청년 여자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년이, 부모로부터 분가해서 생활하는 경우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남.
 - 정치 참여와 관련하여 지난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는지를 물어본 결과, 80.0%가 참여했다고 응답했음. 이번 조사의 응답결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체 선거인 표본조사에 비해 투표율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는 전체 선거인을 모집단으로 10.3% 표본(4,527,83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다 정확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의 참여비율이 높았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2: 476)의 성별에 따른 연령대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이번에 처음 참여한 18세(남:여=67.8%:75.0%)와 19세(남:여=70.7%:74.5%), 그리고 20대 전반(남:여=70.0%:73.4%)과 20대 후반(남:여=66.3%:75.2%), 마지막으로 30대 초반(남:여=68.3%:73.7%)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투표율이 높아 공통적으로 여자 청년의 참여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의 참여비율이 높았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2: 472)에서 연령대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18세가 71.3%, 19세가 72.5%, 20대 전반이 71.6%, 20대 후반이 70.4%, 30대 전반이 70.9%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이번 조사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 도시규모별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년인 경우에,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인 경우에, 경제 수준별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청년인 경우에, 주거형태별로는 독립해서 생활하는 청년인 경우에, 일자리형태별로는 비임금 근로자인 경우에,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참여 비율이 높았음.

표 3 지난 대통령선거 참여여부(명, %)

구분		사례수	지난 대통령 선거 참여여부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았다	투표권 없었다
전체		(1,938)	80.0	18.6	1.4
성별	남자	(1,002)	78.8	19.7	1.6
	여자	(936)	81.5	17.3	1.2
연령	만19~24세	(634)	66.9	28.9	4.3
	만25~29세	(663)	83.7	16.3	0.0
	만30~34세	(641)	89.1	10.9	0.0
도시규모	대도시	(1,183)	79.2	19.3	1.5
	중소도시	(434)	80.1	19.1	0.8
	농어촌	(321)	83.0	15.1	1.9
학력	고졸이하	(494)	74.2	24.2	1.6
	대학/대학원 재학	(445)	69.3	26.5	4.2
	대졸이상	(999)	88.0	12.0	0.0
경제 수준	못산다	(254)	75.6	23.1	1.3
	보통	(1,032)	81.1	18.2	0.7
	잘산다	(652)	80.3	17.1	2.6
주거 형태	동거	(1,160)	75.4	22.6	2.0
	비동거/독립	(778)	86.8	12.8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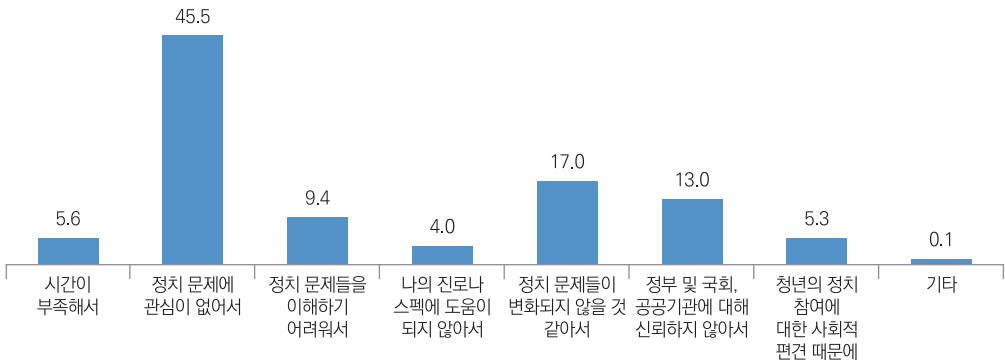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지난 대통령 선거 참여여부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았다	투표권 없었다
일자리 형태	일자리없음	(576)	70,4	25,8	3,8
	임금근로자-비정규직	(238)	76,4	22,2	1,3
	임금근로자-정규직	(982)	85,3	14,7	0,0
	비임금근로자	(142)	88,1	10,5	1,4
혼인상태	배우자없음	(1,580)	77,5	20,8	1,7
	배우자있음	(358)	91,7	8,3	0,0

주) 퍼센트(%)는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출처: 김기현, 장근영, 신인철, 임성근(2023: 118).

■ 청년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가 가장 높아
 -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청년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였음. 첫 번째 이유로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가 45.5%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음.
 - 이어서 “정치 문제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17.0%였고 “정부 및 국회, 공공기관에 대해 신뢰하지 않아서”가 13.0%로 뒤를 이었음. 이어서 “정치 문제들을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9.4%로 나타났음. 이어서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5.6%, “청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라는 응답이 5.3%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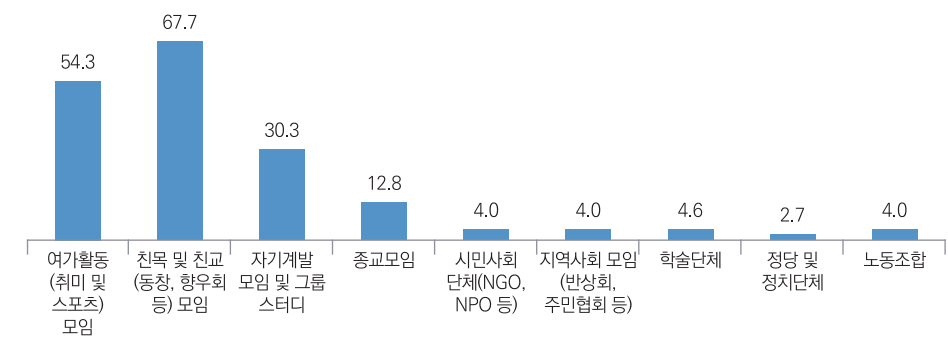
출처: 김기현, 장근영, 신인철, 임성근(2023: 115).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8 청년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 2023)

■ 청년의 단체 및 여가활동 참여

- 친목 및 친교 모임 참여 비율이 67.7%로 가장 높았고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은 2.7%로 가장 낮아
 - 청년의 단체 및 여가활동 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친목 및 친교 모임 참여 비율이 67.7%로 가장 높았음. 이어서 여가활동 모임이 54.3%였고 자기계발 모임 및 그룹스터디는 12.8%였음.

–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가입은 4.0%였고 노동조합 가입이나 지역사회모임 등도 4.0%로 나타났음.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은 2.7%로 나타났음.



출처: 김기현, 장근영, 신인철, 임성근(2023: 123),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9 청년의 단체 및 여가활동 참여(% , 2023)

■ 청년자율예산제(참여예산제)

- 자율예산제(참여예산제) 인지율은 11.6%, 참여율은 0.6%에 그쳐
 - 실질적인 청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도입 중인 청년 자율예산제 혹은 참여예산제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았음. 이것은 서울시가 청년 자율예산제라는 이름으로 정책 당사자인 청년이 직접 제안하는 과제에 대해 예산을 배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실질적인 참여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청년 자율 혹은 참여예산제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청년 중 11.6%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에서 실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0.6%에 그쳤음.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숙의토론방식으로 예산을 정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저변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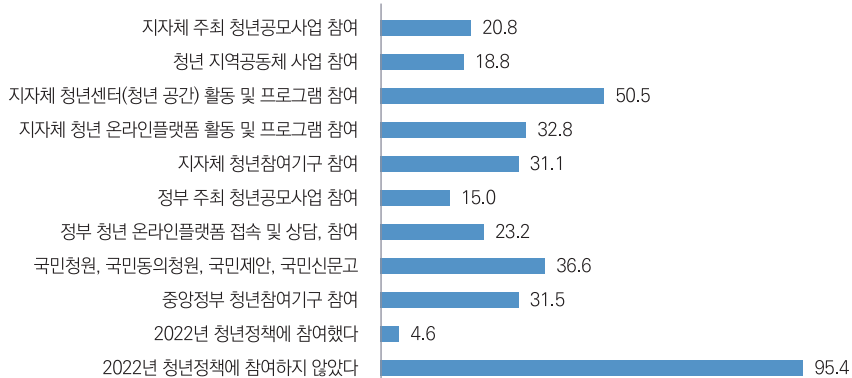


출처: 김기현, 장근영, 신인철, 임성근(2023: 133),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10 청년 자율예산제(참여예산제) 인지율 및 참여율(% , 2023)

■ 청년정책 참여와 참여정책

- 청년정책 참여비율은 2022년 4.6%에 그쳐, 참여정책 사업 중 지자체 청년센터나 공간 참여가 가장 높아
 - 청년정책 참여비율을 살펴보면, 2022년 1년 동안 청년정책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에 그쳤음. 2022년 현재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과제는 376개에 이르고 예산은 24조 6천억원으로 과제와 예산을 고려할 때 청년정책에 대한 참여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관계부처합동, 2023).
 - 청년정책 참여자를 대상으로 청년참여정책사업에 대한 참여 비율을 살펴본 바 있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참여거버넌스를 대상으로 질문을 했는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준 것은 지자체 청년센터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프로그램 참여였음. 청년정책 참여자 중 50.5%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자체 청년센터가 일종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던 사업은 청년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로 국민 청원, 국민동의청원, 국민 제안, 국민 신문고 등에 참여한 것으로 36.6%였음. 이어서 지자체 청년 온라인 플랫폼 활동이나 프로그램 참여가 32.8%로 온라인을 활용한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청년 참여기구의 참가는 중앙정부가 31.5%였고 지자체가 31.1%로 나타났음.



출처: 김기현, 장근영, 신인철, 임성근(2023: 135), 19~34세 표본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그림 11 청년정책 및 참여정책 참여비율(% , 2022)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23). 2023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세종: 국무조정실.

김기현, 장근영, 신인철, 임성근(2023).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참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총람.

Arnett, J. J. (1998). Learning to Stand Alone: The Contemporary American Transition to Adulthood in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 *Human Development*, 41: 295-315.